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공공청사 22개소
행안부 내진성능 안전 인증

정읍시청을 비롯한 정읍시 산하 22개소 공공청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았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인증 명판과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진 성능평가와 인증 심사 절차를 거친다.

시는 내진설계 대상인 2018년 이후 신축건물을 제외한 22개 청사에 대해 2019년부터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했다.

이후, 현장 심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지진 안전 시설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붕괴 방지와 인명 안전의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9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이용남 의원이 밀원자연 조성을 통한 위기 극복 및 다양성 확보란 주제로 김형대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험 휴안마을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다.

또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의 범위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에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행복콜택시 운행 확대

심덕섭 군수 핵심공약... 거리기준 완화로 운행마을 150여개로 늘려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행복콜택시(천원택시)의 운행 확대가 본격화 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행복콜택시(천원택시) 거리기준을 0.5km로 완화(마을회관부터 가까운 버스승강장)하고 운행마을을 150여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7억5400만원으로 편성됐다. 행복콜택시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읍·면 소재지부터 해당 마을까지 1인당 1000원만 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민 이용요금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창군이 전액 부담한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거당시 군민들의 편리한 교통복지 증진을 강조하며 '교통약자 1천원 택시 확대운행'을 공약했다.

올해 행복콜택시 확대 운행 마을의 한 주민은 "거동이 불편한데 버스 승강장은 너무 멀고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 노선 또한 별로 없어 택시를 타면 1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 교통비 부담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한결 편해졌다"라고 말했다.

군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콜택시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9일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정읍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어려움 해결 위해”

정읍시, 중소기업 대상 올해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열어

정읍시는 9일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정읍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정읍시가 주관하고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 자리에는 전라북도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조달청 등 9개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을 비롯해 기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창업지원과 자금지원, 수출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기관별 지원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참석한 기업체에 정읍시를 비롯해 중소기업청과 전북북도의 기업지원 시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등 시책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부했다.

이와 함께 창업과 지식재산권, 전문경영 분야에 대해 기업체와 전문가의 일대일 심층 상담을 진행해 기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책자에 담긴 내용을 더 많은 기업과 공유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등록,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해 인력수급이 필요한 기업체와 구직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연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신성장 이끌 국가예산 발굴 '박차'

제3차 국가예산발굴 보고회... 어촌 신활력 증진 등 보고

고창군은 예산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제3차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9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노형수 부군수와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분석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고회에선 △개발 세계자연유산 인 식확산 교육장 조성사업 △기능성 인 증원료 생산시설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농식품부유치 시험사업 등 24건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보고가 진행됐다.

이로써 고창군은 1~3차까지 발굴한 124건의 사업(총사업비 1388000억원)

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 8기 비전인 행복군민, 활력고창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라며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정차권,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문화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언론인 정례브리핑 가져

문화수련원 건립 · 내장산리조트 관광활성화 사업 등 주요 업무 심층 브리핑

정읍시가 소통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과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인 대상 브리핑을 정례화한다.

언론인 정례브리핑은 시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번째 언론인 브리핑은 9일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문화행정국의 소관 업무로 진행됐다.

이날 브리핑은 류태영 국장이 문화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현안,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류 국장은 6개 과의 주요 업무와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의 '무성서원 문화수련원 건립'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류 국장은 “영남권에는 안동과 영주 문화수련원 등 선비문화 전승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호남지역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호



남지역의 유일한 문화수련원을 건립해 정읍의 인문·자연 등과 연계한 인성 수련의 매카로 자리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이어 시민을 위한 시립예술단 환상공연과 2023년 정읍 빛꽃축제를 홍보하고,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과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이와 함께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을 위한 세정과 소관 업무와 동화문

화재와 소관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 계획 수립'과 '미한·백제 문화권 유적 발굴 및 복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류태영 국장은 “정읍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세정·정보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기센터, 친환경벤처농업대학 입학식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마케팅반 등 3개과정 116명을 대상으로 제9기 부안군 친환경 벤처농업 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19회째 실시되는 친환경벤처농업대학은 매년 3월부터 11월 장기간 교육을 진행해 오던 것을 농번기를 제외한 19회째 실시되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실

효성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오는 7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농업마케팅반, 원예조경반, 약초활용

가공반 등 3개반으로 개설하여 과정별로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등 다양한 강사진을 통해 우리지역 농업 활력화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농장, 실습교육장 등 견학을 통해 맞춤형 현장 기술 교육으로 추진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시시때때의 브랜드가 경쟁력이 되는 만큼 각 교육과정을 통해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경영능력을 길러 지역 농업을 주도하는 선도 농업인으로 거듭나길 당부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